

사순절 두번째 / 선교, 교육 약정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IN LENT

주후 2021년 2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27 장 “내가 매일 기쁘게” (새 19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 번 시편 (Psalm) 2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 (Philippians) 4:1-9	이기울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6) – 선교적 삶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by Missional Living)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285 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새 228) 1,2 절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هل어져 나누는 주의 만찬)	다같이
찬 송 Hymn	285 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새 228) 3,4 절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염려와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합당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6:41, 요 17:3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글개역 **빌 4:9**)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 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NIV **Philippians 4: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28 (주일)	3/1 (월)	3/2 (화)	3/3 (수)	3/4 (목)	3/5 (금)	3/6 (토)
	출11	출12	출13	출14	출15	출16	출17
본문	눅14	눅15	눅16	눅17	눅18	눅19	눅20
	욘29	욘30	욘31	욘32	욘33	욘34	욘35
	고전15	고전16	고후1	고후2	고후3	고후4	고후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3/3 오후7:30)	“왜 기도하는가?” (마65-13)
토요 새벽기도회 (3/6 오전6:30)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시281-9)

지난 주일(2/21)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5) – 진실한 반응으로” (눅 14:12-24)

오늘 본문(눅14:12-24)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신 천국의 비유(천국 잔치의 비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잔치를 배설하여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는데, (이러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잔치에 응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유를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이기 보다는, 아쉬움의 잔치, 또는 슬픔의 잔치 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취소하거나 다음으로 연기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에 초대 받지 못했던 사람들(즉, 자격 없는 사람들)로 잔치를 채우며, 그래도 여전히 잔치의 자리가 남게 되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맞보지 못하리라”(눅14:24)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 달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포기하며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3)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초청)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에 대해, Responsible Response (책임 있는 반응)으로 진실하게 응답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